대한한의학회지 : 제 16권 제 1호
K.O.M.S Vol. 16. No. 1. 1995

三陰三陽 表裏 關係의 構成原理에 대한 硏究

金俊錡* · 崔達永

ABSTRACT

A study of the exterior and interior relation's consitutional principle on three yin three yang.

Jun-Ki Kim · Dal-Yeong Choi
Department of Oriental Medicine
Graduate School of Dongguk University

In order to clear the basic concept about oriental medical physiology and pathology, We studied the theory of three yin, three yang, and it is based on the principle that yang goes forward and yin goes back.

The result were summarized as follows.

1. It showed how to originate about the concept of three yin three yang.

---

* 東國大學校 韓醫科大學 病理學敎授

2. It showed the logical basis concerning that the TAIYANG channels are open, the YANGMING channels are shut, the SHAOYANG channels are pivots, the TAIYIN open, SHAOYIN shut, JUEYIN pivots.
3. According to the opening, closing, pivoting principle, It explained the exterior and interior relation such as TAIYANG and SHAOYIN, YANGMING and TAIYIN, SHAOYANG and JUEYIN.
4. According to the opening, closing, pivoting principle, It showed that arteries of the twelve channels rotated in lung channel of hand-TAIYIN, the large intestine channel of hand-YANGMING, the stomach channel of foot-YANGMING, the spleen channel of foot-TAIYIN, the heart channel of hand-SHAOYIN, the small intestine channel of hand-SHAOYANG, the urinary bladder channel of foot-TAIYANG, the kidney channel of foot-SHAOYIN, the pericardium channel of hand-JUEYIN, the sanjiao(三焦) channel of hand-SHAOYANG, the gall bladder channel of foot-SHAOYANG, the liver channel of foot-JUEYIN.
5. As arteries of the twelve channels was based on the cycle, the logical criticism about Napgibup(納氣法) was shown.

Ⅰ. 緖 論

三陰三陽은 陰陽에 대한 數量과 順序上의 再分析으로서 陰陽論의 主要 構成 部分이며 韓醫學 理論 體系 가운데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1] 三陰三陽은 陰陽論의 韓醫學적 應用 形態로서 六氣論·運氣論·標本中氣論 등의 주요 內容이 되며, 臟腑·經絡 등의 生理·病理 現狀을 說明함에 있어 基本 槪念으로서 활용되고 있다. 즉 韓醫學에서는 三陰三陽을 통하여 自然界의 各種 氣象 變化 및 人體의 많은 生理·病理 變化와 人間과 自然界 사이의 關係를 分析·說明하고 있다.

본 論文에서는 『素問·陰陽離合論篇第六』[2] 『素問·血氣形志篇第二十四』[3] 『素問·熱論第三十一』[4], 『靈樞九針論第七十八』[5] 等에 나타나고 있는 三陰三陽의 表裏 關係에 있어 그 構成 形式에 대한 旣存의 說明 方法이 論理的 必然性이 不足하다고 생각되므로, 『素問·陰陽離合論篇第六』, 『靈樞·筋結第五』[6] 等에 나오는 開闔樞理論을 中心으로 三陰三陽 表裏 關係의 形式的 側面을 分析하여 報告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論文은 三陰三陽의 歷史性에 대한 文獻的 分析보다 三陰三陽의 共時的 構造의 論理性에 대한 考察을 中心으로 接近하고자 한다.

Ⅱ. 本論

1. 『素問·陰陽離合論篇第六』의 意義

1) 『素問·陰陽離合論篇第六』[7]의 關聯 原文

黃帝問曰 : 余聞天爲陽, 地爲陰, 日爲陽, 月爲陰, 大小月三百六十日成一歲, 人亦應之. 今三陰三陽, 不應陰陽, 其故何也 ?

岐伯對曰 : 陰陽者, 數之可十, 推之可百, 數之可千, 推之可萬, 萬之大不可勝數, 然其要一也. 天覆地載, 萬物方生, 未出地者, 命曰陰處, 名曰陰中之陰 ; 則出地者, 命曰陰中之陽. 陽予之正, 陰爲之主. 故生因春, 長因夏, 收因秋, 藏因冬. 失常則天地四塞. 陰陽之變, 其在人者, 亦數之可數.

帝曰 : 願聞三陰三陽之離合也.

岐伯曰 : 聖人南面而立, 前曰廣明, 後曰太沖, 太沖之地, 名曰少陰. **少陰之上, 名曰太陽**. 太陽根起於至陰, 結於命門, 名曰陰中之陽. 中身而上, 名曰廣明, 廣明之下, 名曰太陰. **太陰之前, 名曰陽明**, 陽明根起於厲兌, 名曰陰中之陽. **厥陰之表, 名曰少陽**, 少陽根起於竅陰, 名曰陰中之少陽. 是故三陽之離合也, **太陽爲開, 陽明爲闔, 少陽爲樞**. 三經者, 不得相失也, 搏而勿浮, 命曰一陽.

帝曰 : 願聞三陰 ?

岐伯曰 : 外者爲陽, 內者爲陰, 然則中爲陰, 其冲在下, 名曰太陰, 太陰根起於隱白, 名曰陰中之陰. 太陰之後, 名曰少陰, 少陰根起於涌泉, 名曰陰中之少陰. 少陰之前, 名曰厥陰, 厥陰根起於大敦, 陰之絶陽, 名曰陰之絶陽. 是故三陰之離合也, **太陰爲開, 厥陰爲闔, 少陰爲樞**. 三經者, 不得相失也, 搏而勿沈, 名曰一陰.

陰陽彊重彊重, 積傳爲一周, 氣裏形表 而爲相成也.

2) 『素問·陰陽離合論篇第六』의 選擇 理由

本考에서 『素問·陰陽離合論』을 中心으로 論旨를 전개하는 이유는 아래와 같다.

첫째, 王冰注本의 『素問』은 「上古天眞論篇第一」「四氣調神大論篇第二」「生氣通天論篇第三」「金匱眞言論篇第四」 等의 卷第一, 「陰陽應象大論篇第五」 「陰陽離合論篇第六」 「陰陽別論篇第七」 等의 卷第二, 「靈蘭秘典論篇第八」 六節藏象論篇第九」 「五藏生成論篇第十」 「五藏別論篇第十一」 等의 卷第三 等 總二十四卷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卷之一은 精氣神을 비롯한 韓醫學의 全般的인 槪念을 서술하였으며, 卷之二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陰陽論의 韓醫學的 應用에 관련된 內容이며, 卷之三은 臟象論에 대한 것으로서 三卷 모두 韓醫學의 總論的 內容에 해당한다. 즉 "黃帝問曰 : 余聞天爲陽, 地爲陰, 日爲陽, 月爲陰, 大小月三百六十日成一歲, 人亦應之. 今三陰三陽, 不應陰陽, 其故何也 ? "이라고 하였듯이 本篇의 意義는 二陰二陽의 一般的 陰陽論과 區別되는 韓醫學적 陰陽論 즉 三陰三陽에 대한 理論을 기술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本考의 主題가 되는 三陰三陽의 表裏關係에 있어서도 他編에서는 手足三陰三陽 즉 十二經脈의 表裏關係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나 本篇에서는 足經의 三陰三陽에 대한 內容만 있는 것으로 보아 十二經脈 또는 三陰三陽의 表裏關係에 있어 初步的 理論 形態를 보여 준다고 볼 수 있다.

둘째, 本篇의 구성에서 알 수 있듯이 "帝曰 : 願聞三陰三陽之離合也."에 대한 기백의 대답에서 " 岐伯曰 : 少陰之上, 名曰太陽.…… 太陰之前, 名曰陽明,……厥陰之表, 名曰少陽.…… 是故三陽之離合也, 太陽爲開, 陽明爲闔, 少陽爲樞. 三經者, 不得相失也, 搏而勿浮, 命曰一陽.……是故三陰之離合也, 太陰爲開, 厥陰爲闔, 少陰爲樞.

三經者, 不得相失也, 搏而勿沈, 名曰一陰. 陰陽彀重, 積傳爲一周, 氣裏形表 而爲相成也."라 하여 三陰三陽의 表裏關係를 표현하면서 "太陽爲開, 陽明爲闔, 少陽爲樞." "太陰爲開, 厥陰爲闔, 少陰爲樞."라 하여 三陰三陽의 開闔樞를 통해서 表裏關係의 構成 原理를 해결할 수 있는 암시를 주고 있다.

2. 『素問·陰陽離合論篇第六』에 대한 歷代 注家의 注釋 分析

①楊上善[8]

"太陽卽足太陽, 是腎之府膀胱脈也."

"陽明, 脾府之脈, 在太陰表前."

"厥陰之脈, 起於足大指叢毛之上, 循陰股上注於肺, 陰藏行內也. 少陽, 肝府之脈, 起足竅陰, 上取於耳, 爲表陽府也."

②王氷[9]

"腎藏爲陰, 膀胱腑爲陽, 陰氣在下,陽氣在上, 此爲一合之經氣也."

"人身之中, 胃爲陽明脈, 行在脾脈之前. 脾爲太陰脈, 行於胃脈之後."

"人身之中, 膽少陽, 行肝脈之分外, 肝厥陰脈, 行膽脈之位內."

③吳崑[10]

"少陰腎脈, 行于足小趾之下 ; 太陽膀胱脈, 行于足小趾之上, 相爲表裏."

"太陰脾經之前, 是陽明胃經之脈也. 二脈相爲表裏."

"厥陰肝脈, 行于足裏, 少陽膽經, 行于其表, 二脈相爲表裏."

④張景岳[11]

"有少陰之裏, 則有太陽之表, 陰氣在下, 陽氣在上, 故少陰經起于小指之下, 太陽經止于小指之側, 故曰少陰之上名太陽也. ·····然離則陰陽各其經, 合則表裏同其氣, 是謂水臧陰陽之理合也."

"太陰之表, 陽明胃也, 故太陰之前, 名曰陽明.·····此土臧陰陽之理合也."

"少陽與厥陰爲表裏,····故厥陰之表, 爲陰中之少陽也. 所謂少陽者, 以厥陰氣盡, 陰盡而陽始, 故曰少陽. 此木臧陰陽之理合也."

⑤高士宗[12]

"少陰之上 名曰太陽, 是太陽之根于少陰也. 故人身太陽之根, 起于足小指外側之至陰, 結于目中央之命門, 是雖太陽, 以名曰陰中之陽, 此太陽之根于少陰者如此."

<<考察>>歷代 注家들의 表裏 關係에 대한 說明은 十二經絡 流走上의 對應關係로 說明하고 있다. 그러나 「陰陽離合論」 자체에서 開闔樞를 통해 總括한 것은 經絡에 대한 抽象的인 認識態度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表裏關係의 解析에 있어서도 抽象的인 論理性을 追求해야 한다. 다시 말하여 開闔樞로 각 경락의 기능을 총괄했다면 開闔樞를 통하여 表裏關係를 說明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할 것이다. 旣存의 注家들이 사용하고 있는 經絡流走에 의한 表裏關係의 說明은 三陰三陽의 表裏 關係가 설정되고 난 후의 內容으로 다시 三陰三陽의 表裏 關係를 說明하는 論理的인 모순을 범했다고 볼 수 있다.[13]

3. 開闔樞를 應用한 三陰三陽 表裏關係에 대한 假說

1) 開闔樞 假說에 대한 理論的 根據

本章에서는 開闔樞 假說의 根據가 되는 陰進陽退의 槪念과 人體를 開闔樞라는 論理的 槪念을 통해 분석하는 것이 『內經』的 根據가 있는지의 여부를 중점적으로 논하게 될 것이다.

(1) 陽進陰退에 의한 陰陽의 運動性

①『太極圖說』:

"無極而太極, 太極動而生陽. 動極而靜, 靜而生陰, 靜極復動. 一動一靜, 互爲其根, 分陰分陽, 兩儀立焉. 陽變陰合, 而生水火木金土. 五氣順布, 四時行焉. 五行一陰陽也, 陰陽一太極也. 太極本無極也. 五行之生也, 各一其性. 無極之眞, 二五之精, 妙合而凝, 乾道成男, 坤道成女. 二氣交感, 化生萬物, 萬物生生而變化無窮焉."[14]

<<考察>> : 太極圖說에서 보는 바와 같이 陰陽의 基本 運動 形式은 動靜이라고 할 수 있다. 動靜의 의미를 運動의 方向性이라는 側面에서 달리 표현하면 進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②太極에서 四象으로의 分化

『周易·繫辭上傳第十一章』

"易有太極, 是生兩儀, 兩儀生四象, 四象生八卦"[15]

<<考察>> : 『周易』에서는 太極에서 兩儀 그리고 兩儀에서 四象으로의 분화 순서를 보이고 있다. 이를 도식화한 『周易本義』의 伏羲八卦次序之圖[16]를 인용하면 아래와 같다.

太陰	少陽	少陰	太陽	四象
陰		陽		兩儀
太極				太極

표 5

이것을 西漢末의 서적인 『易緯乾鑿度』의 "陽動而進, 陰動而退, 故陽以七, 陰以八爲象. 易一陰一陽, 合而爲十五之謂道. 陽變七之九, 陰變八之六, 亦合于十五, 則象變之數若一也. 陽動而進, 變七之九, 象其氣之息也. 陰動而退, 變八之六, 象其氣之消也. 故太一取其數以行九宮, 四正四維皆合于十五."[17]와 『周易·繫辭傳第九章』 "乾之策二百一十有六, 坤之策百四十有四, 凡三百有六十, 當期之日"에 대한 朱子의 注釋 "凡此策數, 生於四象, 蓋河圖四面, 太陽居一而連九, 少陰居二而連八, 少陽居三而連七, 太陽居四而連六"[18]을 통해 아래와 같이 유추할 수 있다.

陽 : 少陽 -> 太陽(7 -> 9) = 陽進

陰 : 太陰 -> 少陰(6 -> 8) = 陰退

<<考察>>위의 內容을 종합하면 周易에 나타나는 陰陽의 基本 運動 形式이 陽進陰退이며 少陽에서 太陽의 陽進하고 太陰에서 少陰으로의 陰退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陰에서 少陽이 생하고 陽에서 少陰이 생하는 것은 少陽과 少陰의 始原 自體가 陰陽의 交叉이므로 三陰三陽의 開闔樞에 있어 兩者가 樞로 配屬되

는 강력한 논리적 근거가 된다.

(2)『內經』에서의 陽進陰退

『素問·四氣調神大論』[19]

逆春氣, 則少陽不生, 肝氣內變 ;

逆夏氣, 則太陽不長, 心氣內洞 ;

逆秋氣, 則太陰不收, 肺氣焦滿 ;

逆冬氣, 則少陰不藏, 腎氣獨沈.

<<考察>>이 부분에 대하여 楊上善[20],王氷[21] 吳崑[22] 등 歷代 注家들과 近代의 王琦[23] 등은 陰陽太少의 配屬에 있어 별다른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있으나, 郭靄春[24] 胡天雄[25] 등은 秋冬의 陰陽配屬에 있어 太少가 뒤바뀌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王玉川[26]은 陽進陰退 理論이 『內經』에 나타나 있는 부분으로 인식하고 있다.

2) 四象에 陽明·厥陰의 槪念을 導入에 의한 三陰三陽의 槪念 成立

(1) 三陰三陽 槪念의 必要性

古代 醫家들은 人體에서 特異한 生理·病理 變化에 접하거나, 臟腑·經絡의 기능이 自然界에 나타나는 각종 복잡한 변화와 같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 陰陽을 太少의 方法으로 分析하려는 것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陰陽에 대한 새로운 개념 도입이 필요하였으며 따라서 二陽二陰에서 三陽三陰으로의 理論的 發展이 이루졌을 것으로 추정된다.[27]

(2) 陽明과 厥陰의 導入에 의한 三陰三陽의 成立

『素問·至眞要大論第七十四』[28]

帝曰 : 善 ! 願聞陰陽之三也. 何謂 ?

岐伯曰 : 氣有多少異用也.

帝曰 : 陽明何謂也 ?

岐伯曰 : 兩陽合明也.

帝曰 : 厥陰何也 ?

岐伯曰 : 兩陰交盡也.

張景岳[29]

兩陽合明, 陽之盛也.

兩陰厥盡, 陰之盛也.

<<考察>>陽進 : 少陽 -> 太陽 -> 1(?)

陰退 : 太陰 -> 少陰 -> 2(?)

四象에서 三陰三陽으로의 分化에 있어 陰陽의 새로운 槪念을 導入할 수 있는 위치는 1(?)과 2(?)가 될 것이며 그 命名 原則도 陽은 陽進의 運動이 극성함을 陰은 陰退의 운동이 극성함을 象徵하게 될 것이다. 『素問·至眞要大論第七十四』의 이 구절에 대한 역대 주석 중에서 張景岳은 "兩陽合明, 陽之盛也 ; 兩陰厥盡, 陰之盛也."라 하여 陽明과 厥陰에 있어 개념 설정의 방식이 陽進陰退의 運動性에 의한 것임을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다.

3) 開闔樞 假說의 導入

(1) 開闔樞의 構成 形式

생명체의 구성 원리는 가장 경제적인 구조를 가지기 때문에 開闔樞의 運動 形式을 중복

되지 않게 조합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만들어 보면 아래와 같다.

(開 闔) (開 樞) (樞 闔)

(2) 三陰三陽의 表裏 形式

三陰과 三陽을 중복되지 않게 결합하는 모든 경우의 수는 아래와 같다. 陰과 陰, 陽과 陽으로 결합하는 것은 자연의 원리에 위배되므로 고려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30]

① (太陰 太陽) (少陰 陽明) (厥陰 少陽)
② (太陰 太陽) (少陰 少陽) (厥陰 陽明)
③ (太陰 陽明) (少陰 太陽) (厥陰 少陽)
④ (太陰 陽明) (少陰 少陽) (厥陰 太陽)
⑤ (太陰 少陽) (少陰 太陽) (厥陰 陽明)
⑥ (太陰 少陽) (少陰 陽明) (厥陰 太陽)

(3) 三陰三陽의 表裏구성에 대한 開闔樞의 配屬

위의 구성례에 開闔樞의 屬性을 부여하면 아래와 같이 된다.

① (開 開) (樞 闔) (闔 樞)
② (開 開) (樞 樞) (闔 闔)
③ (開 闔) (樞 開) (闔 樞)
④ (開 闔) (樞 樞) (闔 開)
⑤ (開 樞) (樞 開) (闔 闔)
⑥ (開 樞) (樞 闔) (闔 開)

<<考察>>여기에서 만들어진 모든 경우의 수 가운데에 (1)에서 논한 開闔樞의 構成形式과 일치하는 것은 아래와 같다.

③ (太陰 陽明) (少陰 太陽) (厥陰 少陽) =
(開 闔) (樞 開) (闔 樞)

⑥ (太陰 少陽) (少陰 陽明) (厥陰 太陽) =
(開 樞) (樞 闔) (闔 開)

③번과 ⑥번은 開闔樞의 構成 形式에서는 同一하나 配置가 반대로 되어 있다. 그렇다면 당시 의가의 고민은 양자 가운데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였을 것이다.

(4) 各個 構成 形式에 대한 論理性 檢證

① (太陰 少陽) (少陰 陽明) (厥陰 太陽) =
(開 樞) (樞 闔) (闔 開)

가) (太陰 少陽) (少陰 陽明) (厥陰 太陽)
(太陰 少陽)
(少陰 陽明)
(厥陰 太陽)

太陰 少陰 厥陰 : 陰退의 運動性이 나타나고 있음
少陽 陽明 太陽 : 陽進의 運動性이 나타나지 않음
-> 전체적으로 陰陽의 運動性이 나타나지 않음

나) (太陰 少陽) (厥陰 太陽) (少陰 陽明)
= (開 樞) (闔 開) (樞 闔)
(太陰 少陽)
(厥陰 太陽)
(少陰 陽明)

太陰 厥陰 少陰 : 陰退의 運動性이 나타나지 않음
少陽 太陽 陽明 : 陽進의 運動性이 나타나고 있음
-> 전체적으로 陰陽의 運動性이 나타나지 않음

② (太陰 陽明) (少陰 太陽) (厥陰 少陽)
= (開 闔) (樞 開) (闔 樞)

가) (太陰 陽明) (厥陰 少陽) (少陰 太陽)

= (開 闔) (闔 樞)(樞 開)

(太陰 陽明)

(厥陰 少陽)

(少陰 太陽)

太陰 厥陰 少陰 : 陰退의 運動性이 나타나지 않음

陽明 少陽 太陽 : 陽進의 運動性이 나타나지 않음

-> 전체적으로 陰陽의 運動性이 나타나지 않음

나) (太陰 陽明) (少陰 太陽) (厥陰 少陽) = (開 闔) (樞 開) (闔 樞)

(太陰 陽明)

(少陰 太陽)

(厥陰 少陽)

太陰 少陰 厥陰 : 陰退의 運動性이 나타나고 있음 (------>)

陽明 太陽 少陽 : 陽進의 運動性이 나타나고 있음 (<-------)

-> 전체적으로 陰陽의 運動性이 나타나고 있음

(5) 最終的인 選擇 構造

따라서 論理的 整合性을 가지는 것은 2의 나)가 될 것이다.

陰退	(太陰 陽明)	
	(少陰 太陽)	
	(厥陰 少陽)	陽進

(開 闔) (樞 開) (闔 樞) => (開 闔)……

開 -> 闔 -> 樞 -> 開 -> 闔 -> 樞 -> (開 ->……)

<<考察>>(太陰 陽明) (少陰 太陽) (厥陰 少陽)을 직선적으로 배열하면 (開 闔) (樞 開) (闔 樞)가 되며 陰陽의 묶음을 풀면 開 -> 闔 -> 樞 -> 開 -> 闔 -> 樞 -> (開 ->……)의 구조를 가져 機能的 連繫性이 확보된다.

4) 『素問·陰陽離合論』을 통한 "以經解經"의 方法論

①楊上善[31]

"三陽離合爲關闔樞, 以營于身也. 夫爲門者, 貝有三義 : 一者門關, 主禁者也. 膀胱足太陽脈主禁津液及于皮毛, 故爲關也 ; 二者門闔, 謂是門扉, 主關開也. 胃足陽明脈, 今眞氣止息復無留滯, 故名爲闔也 ; 三者門樞, 主轉動者也. 膽足少陽脈主筋, 綱維諸骨, 今其轉動, 故爲樞也."

"三陽爲外門, 三陰爲內門. 內門亦有三者, 一者門關, 主禁者也. 脾臟足太陰脈 主禁水穀之氣, 受納于中不失, 故爲關也 ; 二者門闔, 主關閉者也. 肝臟足厥陰脈, 主守神氣出入, 通塞悲樂, 故爲闔也 ; 三者門樞, 主動轉也. 腎臟足少陰脈, 主行津液, 通諸經脈, 故爲樞也"

②王氷[32]

開闔樞者, 言三陽之氣, 多少不同, 動用殊也. 夫開者, 所以司動靜之基 ; 闔者, 所以執禁固之權. 樞者, 所以主動轉之微. 由斯殊氣之用, 故此三變之也.

③吳昆[33]

"一行于表, 一行于裏, 謂之離 ; 陰陽配偶, 謂之合, 言以上是三陽之離合也. 太陽在裏, 敷暢陽氣, 謂之開 ; 陽明在裏, 受納兩氣, 謂之闔 ; 少陽

在于表裏之間, 轉輸兩氣, 猶樞軸焉, 謂之樞.""

"三陰行前行後之不同, 謂之離 ; 太少厥動出于陰, 謂之合. 太陰居中, 敷布陰氣, 謂之開 ; 厥陰謂盡陰, 受納節陰之氣, 謂之闔 ; 少陰爲腎, 精氣充滿, 則脾職其開, 肝職其闔, 腎氣不充, 則開闔失常, 是少陰爲樞軸也."

④張介賓[34]

"太陽爲開, 謂陽氣發于外, 爲三陽之表也 ; 陽明爲闔, 謂陽氣畜于內, 爲三陽之裏也 ; 少陽爲樞, 謂陽氣在表裏之間, 可出可入如樞機也"

"太陰爲開, 居陰分之表也 ; 厥陰爲闔, 居陰之裏也 ; 少陰爲樞, 居陰分之中也 ; 開者主出, 闔者主入, 樞者主出入之間, 亦與三陽之義同"

⑤高士宗[35]

"太陽爲開, 陽明爲闔, 少陰爲樞, 自其離而複合者言之. 舍闔則不能開, 舍開則不能爲闔, 舍開則不能爲樞, 是三經者, 不得相失也"

"若夫三陰之離合也, 離則太陰爲開, 厥陰爲闔居陰分之裏也, 少陰爲樞居陰分之中也. 開者主出, 闔者主入, 樞者主出入之間.

⑥丹波元簡[36]

"開闔者, 如戶之扉 ; 樞者, 如扉之轉牡. 舍樞不能開闔, 舍開闔不能轉樞, 是以三經者, 不得相失也."

⑦楊維傑[37]

"太陽主表, 是敷布陽氣以衛於外, 故爲開 ; 陽明主裏, 受納陽氣以支援內臟, 故爲闔 ; 少陽居於半表半裏之間, 轉輸內外, 故爲樞."

"太陰居中,施布陰氣, 以灌四週, 故爲開 ; 厥陰爲陰盡, 受納陰氣, 以歸於內,故爲闔 ; 少陰爲腎, 神技充足, 則肝脾能盡其開闔的功能, 所以爲樞."

⑧王琦[38]

"由陽入陰, 由陰入陽, 陰陽離合"

<<考察>>이상의 內容을 종합해 볼 때 開는 陰陽 各個 作用의 開始, 樞는 陰陽의 相互 連繫, 闔은 陰陽 各個 作用의 歸結로 볼 수 있으며[39], 開闔樞는 經脈 循行 部位에 있어 表中裏의 槪念과 經絡의 機能的 連繫性을 內包하는 槪念으로 볼 수 있다.[40] 즉 開闔樞를 통하여 三陰三陽의 表裏關係를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陰陽離合論」을 통해 찾을 수 있다.

4. 開闔樞 假說에 대한 傍證

1) 『素問·陰陽應象大論篇第五』의 人體 認識論

『素問·陰陽應象大論篇第五』[41]

"帝曰 : 余聞上古聖人, 論理人形, 列別藏府, 端絡經脈, 會通六合, 各從其經, 氣穴所發, 各有處名, 谿谷屬骨, 皆有所起, 分部逆從, 各有條理, 四時陰陽, 盡有經紀, 外內之應, 皆有表裏, 其信然乎 ?"

①王氷[42]

"六合, 爲十二經脈之合也. 『靈樞經』曰 : "太陰陽明爲一合, 少陰太陽爲一合, 厥陰少陽爲一合" "手足之脈各三, 則爲六合也. ·····"

②張景岳[43]

"論理,講求也. 列別,分辨也. 端言經脈之發端, 絡言支脈之橫絡. 兩經交至謂之會, 他經相貫謂之通. 十二經之表裏, 謂之六合. 氣血溪谷, 分部逆從等義, 如經脈篇及氣血, 氣府, 支府, 骨空等論, 各有詳載, 而此篇所答, 則惟四時五行臟象氣味之化, 其他則散見各篇也."

③張志總[44]

"帝言人之藏府形身, 與天之四時陰陽外內相應. 惟上古聖人, 能論理人形, 與天地參合, 是以岐伯論天之五方五氣五色五音, 地之五行五味, 以應人之五體五藏五竅五志也. 六合謂十二經脈之合也, 足太陽與足少陰爲一合, 足少陽與足厥陰爲二合, 足陽明與足太陰爲三合, 手太陽與手少陰爲四合, 手少陽與手厥陰爲五合, 手陽明與手太陰爲六合, 各從其經正而相通也. 氣穴者, 經氣所注之穴, 有三百六十五穴, 以應一歲, 而各有定處, 各有定名也. 谿谷者, 大小之分肉, 連於骨而生起也. 分部者, 皮之分部也, 皮部中之浮絡, 分三陰三陽, 有順有逆, 各有條理也, 言天地之四時陰陽, 盡有經緯紀綱, 應人形之外內, 皆有表有裏也."

④馬蒔[45]

"帝問上古聖人, 人有形體, 則論理之, 如靈樞骨度脈度等篇 ; 人有藏府, 則別列之, 如靈樞經水腸胃海論等篇 ; 人有經脈則端絡之, 如靈樞經脈等篇 ; 脈有六合則會通之, 如靈樞經別篇 ; 有六合, 使之各從其經, 凡氣穴所發, 各有其處, 且有其名, 如本經有氣穴經 ; 肉之大會爲谷, 小會爲谿, 凡谿谷屬骨, 皆有所起, 如本經有氣穴論·氣府論·骨空論等篇 ; 分部逆從, 各有條理, 如本經有皮部論等篇 ; 四時陰陽盡有經紀, 如本篇下節所云 ; 外內之應, 皆有表裏, 如本經血氣形志論有太陰與陽明爲表裏之謂."

⑤高士宗[46]

"帝卽以寒熱淸濁, 水火氣味, 四時五行, 申明陰陽應象之理, 義有未盡, 謂上古聖人, 能體天地之陰陽, 以應象于人身, 必能以人身之陰陽, 以應象于天地, 故問于岐伯曰 : 余聞上古聖人, 論理人形, 于人形之中, 而列別藏府, 本藏府而端絡十二經脈"

<<考察>>『黃帝內經素問』의 王冰主本의 卷第二는 「陰陽應象大論篇第五」「陰陽離合論篇第六」「陰陽別論篇第七」로 구성되어 있으며 「陰陽應象大論篇第五」과 「陰陽離合論篇第六」은 內容上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즉 「陰陽應象大論篇第五」의 "論理人形"의 觀點에서 「陰陽離合論篇第六」의 三陰三陽 開闔樞에 의한 抽象的 論理的 說明 方式의 內在的 根據를 찾을 수 있다 할 것이다.

2) 十二經脈 流走 順序의 論理性

手太陰 -> 手陽明 -> 足陽明 -> 足太陰 (開 闔 闔 開)

手少陰 -> 手太陽 -> 足太陽 -> 足少陰 (樞 開 開 樞)

手厥陰 -> 手少陽 -> 足少陽 -> 足厥陰 (闔 樞 樞 闔)

上下同法 : 手經에서 足經으로 연계시키는 메카니즘을 說明할 수 있다.

<<考察>>『素問·陰陽離合論第六』에서는 足三陰三陽經에 대한 內容만 있지만 三陰三陽의

開闔樞 假說을 응응하여 현존하는 手足三陰三陽 十二經脈의 유주 순서를 유추할 수 있다. 이것은 開闔樞 假說의 妥當性을 傍證할 수 있는 유력한 증거로 볼 수 있다.그리고 "上下同法"은 『素問·皮膚論第五十六』[47]에 나오는 개념으로 手足의 속성이 같은 것을 표현한다고 볼 수 있다.

① 手少陰心(手經·樞) -> 足少陽膽(足經·樞)
② 足厥陰肝(足經·闔) -> 手陽明大腸(手經·闔)
③ 足太陰脾(足經·開) -> 手太陽小腸(手經·開)
④ 手太陰肺(手經·開) -> 足太陽膀胱(足經·開)
⑤ 足少陰腎(足經·樞) -> 手少陽三焦(手經·樞)
⑥ 足陽明胃(足經·闔) -> 手厥陰心包(手經·闔)[命門]

5. 開闔樞假說의 韓醫學的 應用

1)『醫學入門』의 臟腑相通論에 대한 分析[48]

『醫學入門·卷之一·臟腑·臟腑條分』

"『五臟穿鑿論』曰 : 心與膽相通, 肝與大腸相通, 脾與小腸相通, 肺與膀胱相通, 腎與三焦相通, 胃與命門相通"

<<考察>>『醫學入門』의 臟腑相通論의 규칙을 開闔樞를 이용하여 분석하면 아래와 같다.

이것은 開闔樞의 구성 방법에 있어 (開開)(闔闔)(樞樞)와 같은 결합도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나 『內經』에서는 채택되지 않는 결합 방법으로 추리된다. 단지 6번례에서 보는 것처럼 임상적 의미를 인정하기 어려운 것은 임상적 기능 說明이 쉬운 것으로 변용되어 있다. 즉 命門과 三焦는 相火를 가지고 있는 臟腑로서 유사성을 가지면서 命門의 相火[眞火]가 火生土하여 胃陽을 만들기 때문에 厥陰 心包 대신에 命門을 결합시킨 것으로 추측된다. 즉 火不生土의 胃陽虛에는 命門相火를 보하는 치법을 쓸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

*十二經納子法取穴及針刺時刻表

臟腑		瀉			補		
		配穴	時辰	鐘點	配穴	時辰	鐘點
肺	手太陰	尺澤	寅	3-5	太淵	卯	5-7
大腸	手陽明	二間	卯	5-7	曲池	辰	7-9
胃	足陽明	厲兌	辰	7-9	解溪	巳	9-11
脾	足太陰	商丘	巳	9-11	大都	午	11-13
心	手少陰	神門	午	11-13	少衝	未	13-15
小腸	手太陽	少海	未	13-15	後谿	申	15-17
膀胱	足太陽	束骨	申	15-17	至陰	酉	17-19
腎	足少陰	湧泉	酉	17-19	復溜	戌	19-21
心包	手厥陰	大陵	戌	19-21	中衝	亥	21-23
三焦	手少陽	天井	亥	21-23	中渚	子	23-1
膽	足少陽	陽輔	子	23-1	俠谿	丑	1-3
肝	足厥陰	行間	丑	1-3	曲泉	寅	3-5

2) 納支法에 대한 批判

納支法은 아래 도표와 같이 『靈樞經水篇第十二』 等에 기술된 十二經脈의 流走 順序를 一日中의 十二時辰 順序와 배합한 것이 기본이 되는 취혈법이다.[49] 그러나 論者는 이러한 十二經脈의 流走順序가 開闔樞 理論을 통하여 抽象的·形式的 側面에서 파생된 것이며 人體에 實在하는 流走順序가 아니라고 推論하므로 納支法에 의한 取穴法과 이와 유사한 針灸配穴法의 論理的 根據는 臨床的 데이타(Data)를 통해 검증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III. 結 論

陽進陰退의 陰陽 屬性을 이용하여 고찰한 결과.

1. 太陽·陽明·少陽, 太陰·少陰·厥陰의 三陰三陽 槪念의 發生 根據를 나타내며,
2. 太陽爲開·陽明爲闔·少陽爲樞, 太陰爲開·少陰爲樞·厥陰爲闔는 三陰三陽의 開闔樞 配屬에 관한 論理的 根據가 되며,
3. 開闔樞의 形式性을 통하여 (太陽 少陰) (陽明 太陰) (少陽 厥陰)의 三陰三陽 表裏關係의 論理的 構造를 이루며,
4. 開闔樞의 形式性을 통하여 手太陰-手陽明-足陽明-足太陰-手少陰-手太陽-足太陽-足少陰-手厥陰-手少陽-足少陽-足厥陰의 十二經絡 流走 順序의 論理性을 提示하였으며,
5. 十二經絡 流走 順序의 形式性에 立脚하여 納支法에 대한 理論的 批判을 提起하였다.

脚 註

1) 王玉川 : 關于三陰三陽問題,北京中醫學報, 1985:8:1, p.12

2) 郭靄春 : 黃帝內經素問校注語譯, 天津, 天津科學技術出版社,1981,p.45
"少陰之上, 名曰太陽; ····太陰之前, 名曰陽明;····厥陰之表, 名曰少陽"

3) 郭靄春 : 黃帝內經素問校注語譯, 天津, 天津科學技術出版社,1981,p.156
"足太陽與少陰爲表裏, 少陽與厥陰爲表裏, 陽明與太陰爲表裏, 是爲足陰陽也. 手太陽與少陰爲表裏, 少陽與心主爲表裏, 陽明與太陰爲表裏, 是爲手之陰陽也."

4) 前揭書 p.193 岐伯曰: 兩感於寒者, 病一日則巨陽與少陰俱病, 則頭痛口乾而煩滿; 二日則陽明與太陰俱病, 則腹滿身熱, 不欲食譫言; 三日則少陽與厥陰俱病, 則耳聾囊縮而厥, 水漿不入, 不知人, 六日死.

5) 郭靄春 : 黃帝內經靈樞校注語譯, 天津,天津科學技術出版社, 1989, p.527
"足陽明太陰爲表裏, 少陽厥陰爲表裏, 太陽少陰爲表裏, 是謂足之陰陽也; 手陽明太陰爲表裏, 少陽厥陰爲表裏, 太陽少陰爲表裏, 是謂手之陰陽也"

6) 郭靄春 : 黃帝內經靈樞校注語譯, 天津,天津科學技術出版社, 1989, p.56 "太陽爲開,陽明爲闔,少陽爲樞", p.58 "太陰爲開,厥陰爲闔,少陰爲樞"

7) 任應秋 : 黃帝內經章句索引,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6, pp.24-25

8) 楊上善 前揭書 pp.58-59

9) 郭靄春 主編 : 黃帝內經素問校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1992,p.109

10) 劉之謙 外 : 黃帝內經素問吳注評釋, 北京, 中醫古籍出版社,1988,p.42-43

11) 張景岳 : 張氏類經, 서울, 成輔社(影印), 1982,pp.286-287

12) 高士宗 : 黃帝素問直解,北京,科學技術文獻出版社,1982,p.56

13) 旣存의 理論 즉 六氣, 標本中氣, 臟腑, 季節配屬에 의한 三陰三陽의 表裏關係에 대한 說明 方法은 이러한 論理的 盲点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14) 勞思光 : 中國哲學史(宋明篇), 서울, 탐구당, 1987, pp.109-110

15) 朱喜注 : 周易,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7, p.62

16) 朱喜 前揭書 p.7

17) 朱喜 : 易學啓蒙, 서울, 예문서원, 1994, p.43

18) 朱喜 前揭書 p.60 凡此策數,生於四象,蓋河圖四面,太陽,居一而連九,少陰,居二而連八,少陽,居三而連七,太陽,居四而連六

19) 任應秋 前揭書 p.11

20) 楊上善 : 黃帝內經太素, pp.8-9

21) 郭靄春 主編 : 黃帝內經素問校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1992, p.31

22) 劉之謙 外 : 黃帝內經素問吳注評釋,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1988, p.11

23) 王琦 : 黃帝內經素問今釋, 貴洲, 貴洲人民出版社, 1979, p.9

24) 郭靄春 主編 : 黃帝內經素問校注語譯,北京, 人民衛生出版社,1992, p.12 郭靄春은 太陰과 少陰이 서로 뒤바뀌었다고 주장하며 그 논거로서 『素問·刺禁論』"肺臧于右"에 대해 林校는 楊上善을 인용하여 "肺爲少陰"이라고 하고 있다고 하며, 또 『漢書·律曆志』"太陰者北方, 于時爲冬 ; 太陽者南方, 于時爲夏 ; 少陰者西方, 于時爲秋, 少陽者東方, 于時爲春"으로 되어 있으니, 이곳에서 말하는 少陽·太陽·少陰·太陰은 肝·心·肺·腎 四臟이 四時에 응하는 것을 나타내었지 십이경맥의 太少陰陽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하였다.

25) 胡天雄 : 素問補識, 北京, 中國醫藥科學技術出版社, 1991, pp.15-16

26) 王玉川 : 關于三陰三陽問題(續),北京中醫學報, 1985:8:1, p.14

27) 王玉川 : 關于三陰三陽問題,北京中醫學報, 1985:8:1, p.14

28) 任應秋 前揭書 p.238

29) 張景岳 : 張氏類經, 서울, 成輔社(影印), 1982, pp.979-980

30) 순서를 일관성있게 정리하기 위하여 太陰을 시작점으로 하였다.

31) 楊上善 : 黃帝內經太素,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pp.59-61
太素에는 太陽과 太陰이 關으로 되어 있지만 일단 논외로 한다.

32) 郭靄春主編 : 黃帝內經素問校注,北京,人民衛生出版社,1992,PP.110-123

33) 劉之謙 外 前揭書 P.43

34) 張景岳 : 張氏類經, 서울, 成輔社(影印), 1982, PP.286-287

35) 高士宗 : 黃帝素問直解,北京,科學技術文獻出版社,1982, PP.56-57

36) 丹波元簡 : 素問識,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4, p.55
37) 楊維傑 : 黃帝內經譯解, 서울, 成輔社(影印), 1980, pp.65-66
38) 王琦 外 : 黃帝內經素問今釋, 貴洲, 貴洲人民衛生出版社, 1979, p.41
39) 鄒學熹 : 易學精要, 成都, 四川科學技術出版社, 1992,p.104
40) 李國淸 主編 : 素問疑識, 哈爾濱, 黑龍江人民出版社,1989, pp.47-48
41) 任應秋 前揭書 p.20
42) 郭靄春 主編 : 黃帝內經素問校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1992, PP.82-83
43) 張景岳 : 張氏類經, 서울, 成輔社(影印), 1982, P.38
44) 陳夢雷 : 醫部全錄(卷之一), 서울, 成輔社(影印), 1982, pp.65
45) 陳夢雷 : 醫部全錄(卷之一), 서울, 成輔社(影印), 1982, pp.64-65
46) 高士宗 : 黃帝素問直解, 北京, 科學技術文獻出版社, 1982, p..41
47) 任應秋 前揭書 p.151
48) 李梴 : 醫學入門,南昌市, 江西科學技術出版社, 1988, p.154
49) 崔容泰 外 : 針灸學(下), 서울, 集文堂, 1991, pp.1146-1147

參 考 文 獻

1. 高士宗 : 黃帝素問直解, 北京, 科學技術文獻出版社, 1982,
2. 郭靄春 主編 : 黃帝內經素問校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1992,
3. 郭靄春 主編 : 黃帝內經素問校注語譯, 北京, 人民衛生出版社,1992,
4. 勞思光 : 中國哲學史(宋明篇), 서울, 탐구당, 1987, pp.109-110
5. 丹波元簡 : 素問識, 北京,人民衛生出版社,1984,
6. 孫曾祺 : 內經答難, 上海, 上海醫學院出版社, 1993,
7. 楊維傑 : 黃帝內經譯解, 서울, 成輔社(影印),1980,
8. 姚止庵 : 素問經注節解,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9. 劉之謙 外 : 黃帝內經素問吳注評釋,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1988,
10. 李國淸 主編 : 素問疑識, 哈爾濱, 黑龍江人民出版社,1989,
11. 李梴 : 醫學入門, 南昌, 江西科學技術出版社, 1988,
12. 任應秋 : 黃帝內經章句索引,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6,
13. 朱喜 : 易學啓蒙, 서울, 예문서원, 1994
14. 朱喜 : 周易,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7
15. 張景岳 : 張氏類經, 서울, 成輔社(影印), 1982,
16. 陳夢雷 : 醫部全錄(卷之一), 서울, 成輔社(影印), 1982,
17. 鄒學熹 : 易學精要, 成都, 四川科學技術出版社, 1992,
18. 胡天雄 : 素問補識, 北京, 中國醫藥科學技術出版社, 1991,
19. 王玉川 : 關于三陰三陽問題,北京中醫學報, 1985:8:1,